

III. 해외마케팅.투자정보 하이라이트

■ 미국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한-중 경쟁 실태 및 대응방안

- 지난 14년간 수입점유율, 중국 0.3%→3.7%, 한국 2.2%→2.1%로 대조적
- 미국 OEM 부품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 노력 절실

- 미국 자동차부품(타이어포함) 수입시장에서 지난 1990년 이후 2003년까지 14년간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부품 연평균 수입증가율 6.4%보다 조금 높은 6.6%의 수출 증가에 머문 반면 중국은 5배에 달하는 33.6%의 고도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미국 자동차부품 수입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1990년 2.2%에서 2003년에는 오히려 0.1%포인트 낮아진 2.1%를 기록한 반면에 중국은 1990년 0.3%에서 2003년에는 3.7%로 대폭 늘어났으며 수입국 순위는 1990년 한국 7위, 중국 17위에서 2003년에는 중국 5위, 한국 6위로 역전되었음.

□ 1990-1995년, 한국 “잃어버린 5년”, 중국 “고성장의 5년”, 점유율 역전

- 지난 1990년에만 해도 중국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규모는 9천만불로 전체 수입규모 316억불 대비 0.3%의 점유율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한국은 중국 대비 자동차산업 부문의 경쟁력 우위에 기반하여 대미 수출규모 6억 8천만불로 수입시장점유율 2.2%를 차지해 양국간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경쟁에서 한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지녔음.

< 한국-중국의 대미 자동차부품(타이어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백만불)

구분	1990			1995			1990-1995 연평균증감율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순위	
전체	31,683	100	-	46,458	100	-	6.8
한국	684	2.2	7	628	1.35	9	-1.0
중국	94	0.3	17	635	1.37	8	51.0

구분	2003			1996-2003 연평균증감율	1990-2003 연평균증감율
	금액	비중	순위		
전체	74,469	100	-	6.2	6.4
한국	1,546	2.1	6	12.2	6.6
중국	2,788	3.7	5	20.6	33.6

(자료원 : 미 상무부)

□ 1996-2003년, 한국 “성장회복”, 중국 “성장지속”, 수입증가율 격차 좁혀

- 소위 “잃어버린 5년”인 1990-1995년 기간을 지나 1996년도에 저점을 거친 후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일부 국내 부품업체의 미국 완성차업체 빅3를 겨냥한 OEM 부품 공급 추진 노력과 미국 완성차 및 대형부품업체의 부품조달 아웃소싱 조짐 등의 국내외적 여건이 상호 맞물리며 양국간 격차를 좁히며 2003년까지 매년 미국의 전세계 자동차부품 수입율을 능가하는 대미 수출 증가율로 호조세를 기록해 왔음.
- 실제로 1996년 이후 2003년까지 8년간 미국의 자동차부품 수입시장은 연평균 6.2%의 증가율로 744억불 규모로 확대된 반면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미국의 전세계 수입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하는 연평균 수입증가율 12.2%에 의해 수입시장점유율도 1.3%에서 2.1%로 늘어났으며,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한국 -1%, 중국 51%를 기록하였던 지난 1990-1995년 기간 중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1996-2003년 기간 중에는 한국 12.2%, 중국 20.6%로 격차가 크게 좁혀졌음.
- 이처럼 최근 들어 한국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증가율이 회복세를 보이며 중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 수출주도형 중소기업체에 의해 시작된 GM, Ford, Chrysler 등의 미국 완성차업체 빅3에 대한 완성차조립용 OEM 공급 노력이 미국 자동차 및 부품업체의 점차적인 글로벌 아웃소싱 추진이 상호 맞물리면서 거두어진 결실인 것으로 분석됨.

□ 한국, 중국업체의 미국 Aftermarket 부품 시장 쇄도로 경쟁력 거의 없어

- 향후 미국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한국이 중국을 따돌리고 수입시장 점유율 면에서 과거 10년전처럼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미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판매후 보수용 Aftermarket 부품 시장보다는 보다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완성차 조립용 OEM 부품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실제로 미국 Aftermarket 자동차부품 시장에 대한 중국의 진출동향은 미국 최대의 Aftermarket 자동차부품 전시회인 “라스베이가스 자동차부품 박람회(AAPEX Show)”에 중국업체들이 이미 한국보다 3배 규모에 달하는 200개사 이상이 참가했다는 면에서 그 열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또한 세계적인 자동차업체들이 중국에 앞다퉂 공장을 설립하면서 중국의 자동차부품 생산수준이 국제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향후 5-8년이 지나면 중국산 부품이 미국 OEM 자동차부품 시장도 크게 잠식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 중국의 미국 OEM 부품시장 진출 본격화에 앞서 시장 선점 노력 절실

- 따라서 미국의 자동차부품 Aftermarket 시장에 이어 OEM 시장에서도 한국이 중국에 경쟁력을 상실해 향후 양국간 미국 수입시장점유율이 견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미국 OEM 부품 시장 선점을 위한 다각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 최근 들어 미국 자동차업체가 매출과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 부품공급체제의 유지가 어려워 가격대비 품질 경쟁력을 갖춘 신규 공급선을 찾는 글로벌 아웃소싱 움직임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으므로 한국의 자동차산업 인프라 경쟁력 우위, GM대우차 출범, 미국 시장내 한국차 판매호조, 현대차의 알라바마 공장건립 등의 우호적인 여건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장진출 노력을 기울인다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면에서 중국을 앞섰던 과거 10년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도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의처 : 디트로이트무역관 김양일 detroit@kotradtt.org)